

# 순천 도시지구 도시첨단산단 본격 추진

MICE산업·연구소 등 유치...청년 일자리 창출 기폭제로  
18만㎡ 부지에 363억 투입 내년 상반기 착공 2019년 완공

순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될 순천만(도시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도시첨단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순천시 야흥동(도시지구) 일대 18만㎡ 부지에 363억을 투입, 201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9월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이다. 순천시는 순천만과 4.8km, 순천만국

가정원과 2.0km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순천만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주변 생태환경과 연계한 MICE 산업, 공공·민간연구소(R&D), 지식서비스 산업 등을 유치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한 고품격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의 획일화된 건축물 디자인을 탈피하고 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품격있고 친환경적인 산업공간을 창조한다는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또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제주 첨단과학단지 등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적극 벤치



순천시가 오는 2019년까지 야흥동 일대 18만㎡ 부지에 조성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마킹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창조경제 혁신거점으로 육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순천시청소년수련원, 체험숙박시설 인기

한해 청소년 5만3000명 방문

순천시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 체험숙박시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시청소년수련원 방문객 중 청소년은 5만3319명으로 전체 6만5281명 중 82%를 차지했다.

수련원 내 순천 아·태 스카우트센터에서는 각 국가의 스카우트 봉사자들이 순천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로 하는 세계문화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다.

순천시청소년수련원은 시설면에서도

정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 유스호스텔은 최우수등급,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은 최우수등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나다.

순천시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올해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개발하고 국가인증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전국 각지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남의 대표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청소년수련원은 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심신수련은 물론 현장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 순천만국가정원, 기업회의 하기 좋은 명소 인증

순천시는 2일 "최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창조 MICE-기업회의 명소 찾아서' 행사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이 기업회의 명소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가 이번 행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 기업회의하기 좋은 명소를 선정하고 명소 홍보발표와 함께 인증서를 수여했다.

순천만국가정원 등 선정된 15개 명소는 이달 중으로 홍보책자가 제작돼 관련 지자체 및 기관, 단체, 해외로 배부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MICE협회,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영상물에 송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회의 명소 선정사업은 지역별로 특화되고 스토리가 있는 기업회의 개최장소를 발굴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한편 순천시는 2017년도 컨벤션(예코 에듀센터)시설이 준공되면 국제회의의 도시로 지정받아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매실 가공공장 신축...음식 브랜드 상품 개발 박차

순천시가 매실을 이용한 음식 브랜드 상품 개발 등 가공 산업 중점 육성으로 매실의 부가가치와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고 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3억6100만원 등 총 53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실 가공공장 건립과 브랜드 개발 등 매실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지역전라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곡성군과 함께 사업비 27억6000만원을 들여 매실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한편 매실 연구개발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순천 매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매실 가공품으로 와인, 레몬, 매실음료, 가루차, 요구르트, 매실과 어우러진 통닭, 불고기 등 음식 브랜드 상품도 개발한다.

순천시는 매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도 36.7ha에서 50ha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순천 음식점 236개 설 연휴 정상 운영

시, 리플릿 제작 배포

순천시는 "설 명절 연휴인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관내 음식점 중 236개소가 정상 영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모범음식점과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에 3일 이상 영업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운영 업소를 권역별로 나눠 리플릿을 제작하고, 시청과 문화건강센터 당직실, 보건소상황실,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드라마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고 있다. 또 최근 맛집으로 떠오른 관내 유명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리플릿에 별도의 안내문을 제공했다.

시는 연휴기간 음식점에서 발생 가능한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해 보건소 보건의료상황실에 음식점 이용불편 신고센터(061-749-6905)를 설치·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안내된 업소라도 사정상 영업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예약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어린이들이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설 연휴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추억 만드세요"

떡메치기·연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전통놀이 마련

순천만국가정원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연다.

순천시는 2일 "설 연휴기간동안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가족방문객들을 위해 전통놀이 체험과 연 날리기 및 연 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원 내 한방체험센터에서는 연휴 기간인 7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1~5시까지 전통 떡메치기 및 인절미 시식과 윷놀이, 굴렁쇠,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동문 출입구에 있는 잔디마당에서는 나래연 날리기 체험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형 연 만들기 체험 부스도 무료로 운영된다.

생태체험장에서는 추운 겨울 날씨에 어울리는 추억의 근고구마 체험 행사가 유료로 운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과 귀성객들을 위해 정(情)을 나누고 추억을 되살리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이들이 방문해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할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